

간호대학생의 외과병동 실습 경험

김 정 수†
(부경대학교)

Student Nurses' Experiences in nursing Practice of Surgical Ward

Jeong-Soo KIM†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scribe and understand experiences of surgical ward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The interview data were collected from 9 nursing students and analyzed by using descriptive phenomenology of Colazzi. The procedural steps was that described the phenomenon of interest, collected participants' descriptions of the phenomenon, extracted the meaning of significant statement, organized the meaning into them clusters, wrote exhaustive descriptions and then incorporated data into categories. The essential meanings of surgical ward practice experiences of nursing students were as following; 'Permission of direct nursing practice', 'Professionalism of nursing domain', 'Serving as a stepping stone of patients' nursing', and 'Sense of achievement to participating nursing'. The results of this study would provide for basic data of surgical ward practice program and have important implication for understanding field practice in nursing. So would contribute to develop nursing practice curriculum.

Key words : Student Nurse, Peri-operative nursing, Qualitative research

I. 서론

간호학 학사학위 프로그램에서 교과목은 이론 교육과 실습교육으로 구성되며, 실습지도는 교내 실습과 임상현장실습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은 간호교육 프로그램의 적합성을 평가하고 간호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인증평가체제를 갖추고 있다(Korean Accreditation Board of Nursing Education 2013). 간호학 교육목적에 적합한 간호사를 양성하기 위해 간호핵심역량을 포함한 간호교육의 인증평가체계는 간호학계의 끊임없는 자성과 쇄신의 거울로 가늠할 수 있다.

따라서 간호사의 자질향상을 위한 임상실습과정은 간호학생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평가체제이전의 간호학사 교육과정보다 평균이상의 간호역량달성을 위한 학습기반과 질적 향상을 추구하여 국가의료보건체계에 기여할 수 있는 간호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목표로 한다.

하지만, 대학생으로서 임상실습의 학습과정은 학생으로 감당해야 하는 현실적 부담감이 부적응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된 바 있었다(Han, Sun-Hee · Yu, Hye-Soon 2012; Son, Haeng-Mi, 2014). 또한 실습적응을 위해 다양한 임상환경을 시뮬레이션 교육과정으로 운영하여 임상적응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과정이 각 대학의 상황에 따라 탄력적

† Corresponding author : 051-629-5784, downey@pknu.ac.kr

※ 이 논문은 부경대학교 자율창의학술연구비(2015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며, 활용방법에 대한 논의가 다각적이었다(Baek, Hee-Chong 2013; Kim, Jung-Hee ·Park, In-Hee & Shin, Su-Jin 2013). 이러한 연구보고는 실습교육의 어려움과 중요성을 동시에 드러낸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국외의 간호실습교육에 대한 연구에서는 임상 환경에 따라 스트레스의 차이가 있다고 보고되었으며(Blomberg et al., 2014), 실습의 강화요인으로 는 허용적 병동분위기와 실무보다는 학습의 일환으로 고려해주며, 현장 프리셉터의 존재 유무인 것으로 보고된 바 있었다(Jonsen, Melender, & Hilli 2013).

이상과 같이 간호실습교육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보고된 내용은 주로 전공영역에서의 실습교육과 기본간호실습 경험(Kim, Jeong-Sun-Sun, Jeong-Ju & Kim, Hyun-Sook 2009), 간호대학생의 인식(Henderson, Cooke, Creedy, & Walker 2012)에 대한 것으로 전반적인 임상실습의 환경에 따른 사회심리적 요인과의 관련성을 탐구하여 간호대학생이 병원환경에서의 적응도를 높이고자 의도된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병동마다 환자의 분류와 업무특성이 다양화되어 현시대의 임상적응을 위해서는 좀더 구체적인 간호영역에서의 임상실습 경험의 본질을 파악하여 실습교육에 적용한다면, 학생의 실습적응도를 향상시키고, 간호역량을 발전시킬 수 있는 임상실습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 가치가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론교육의 정적인 면과 상반되는 동적인 특성이 강화된 실무교육의 구심점이 되는 일반외과병동의 간호실습을 경험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외과병동의 임상실습의 본질적 의미를 파악하여 외과병동에서 이루어지는 간호의 특성에 따라 이론과 실무가 어떻게 접목되고 경험되는지를 포괄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연구 초점은 ‘간호대학생의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외과병동 임상실습 경험의 본

질은 무엇인가?’이었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설계는 Colaizzi(1978)의 서술적 현상학에 기초하여 간호대학생의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외과병동 실습경험의 의미를 도출하여 기술한 질적연구설계이다.

2. 연구 참여자 선정 및 윤리적 고려

본 연구참여자는 일개 간호학과 3학년 재학생으로 성인간호학 이론수업을 수강하고 관련 외과병동의 실습에 참여한 학생으로 1주일간 일반외과병동 임상실습 경험을 통해 자신이 경험한 외과병동의 실습경험에 대해 자발적으로 면담에 응한 9명이었다.

본 연구의 윤리적 고려를 위해 연구참여자는 자신의 실습경험에 대한 면담 내용에 대해 익명성, 개인정보보호, 중도참여포기 및 연구목적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고 허락한다는 연구참여동의서를 작성하였다. 또한 연구계획서는 본 연구자가 속한 기관윤리위원회의 승인(No; 1041386-20140515-HR-001-03) 후 이루어졌으며, 연구자료는 보완이 된 개인용 컴퓨터에 보관하였으며, 기록지는 연구실 이중 잠금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하였고, 연구종료 후에는 면담기록지와 컴퓨터 파일 모두 폐기하였으며, 연구 참여자에게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하였다.

3. 자료수집 및 연구자의 준비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2013년 12월에서 2014년 1월까지 이루어졌으며, “간호대학생의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외과병동 실습경험의 본질은 무엇인가?”의 연구질문에 초점을 두어, 외과병동 실습에서 전반적인 실습환경, 대상자의 간호상황에

다른 임상적용, 의사소통과정에 대한 질문으로 일대일 면담을 기반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면담은 1회 실시하였고, 면담시간은 40분~60분 정도 소요되었으며, 그후 추가자료에 대해서는 전화로 확인하였으며, 관련내용을 녹취하여 필사한 후 자료분석을 하였다.

대상자와의 관계에서 본 자료수집이 연구를 위한 것임을 밝히고, 대상자의 답변에 대해 반복 순환적으로 질문하여 새로운 진술없이 같은 답변이 나오는지에 따라 포화정도를 결정하였으며, 편안한 분위기를 유지하면서도 일정한 거리를 두었다. 또한 연구자의 태도와 기술로 인터뷰동안 연구자와 대상자로서의 입장이라는 관계를 이끌어 가며, 개방적으로 진술하도록 유도하였다.

본 연구자는 질적연구방법으로 박사학위논문과 학술논문을 수행하였고, 학술대회 발표 등 연구 활동을 통해 질적연구방법을 지속적으로 훈련해 왔다. 또한 성인간호학에 대한 이론과 실습의 교육경험으로 본 연구의 주제인 간호대학생의 외과 병동 실습교육과정에 대한 전체적 윤곽을 형성하였으며, 연구자가 지닌 간호대학생의 실습에 대한 인식과 실제 현장에서 나타난 사례에 대한 차이를 분석하면서, 자료분석의 민감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4. 자료분석 및 연구의 타당도 확보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Colaizzi(1978)의 현상학적 분석방법의 절차에 따라 진행하였다. 즉, 필사된 내용을 반복하여 읽으면서 의미있는 단어나 문장에 밑줄을 긋고 본 주제와 관련성이 있는 문구를 의미있는 진술로 도출하였다. 의미있는 진술을 더 일반화된 추상적 형태로 재진술하여 구성된 의미를 기반으로 주제를 정하고, 주제간의 유사성에 따라 주제묶음을 한 후 범주화하였다.

본 연구자는 도출된 주제와 범주들을 다시 원자료와 비교하고 반복하여 읽으면서 주제가 원자료의 의미를 잘 반영하는지 확인하고, 본 연구자

이외의 질적연구자에게 검토 의뢰하여 분석자료의 객관성을 확보하였다. 또한 참여자들에게 각자의 필사내용과 도출된 분석결과의 의미가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연구내용의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간호대학생의 외과간호실습과 관련된 35개의 의미있는 진술, 16개의 주제, 8개의 주제묶음, 4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본질적 주제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연구결과의 엄격성을 확보하고자 Lincoln과 Guba(1985)의 평가기준인 사실적 가치, 적용성, 일관성, 중립성의 항목을 적용하였다. 이에 대해 참여자 9명 전원에게 각자의 면담자료와 분석결과를 배분하여 참여자 경험과의 일치성으로 사실적 가치에 근거하였으며 참여자의 진술에서 더 이상 새로운 자료가 발견되지 않는 포화시점까지 자료수집을 하였으며, 이 또한 참여자에게 확인하여 타당화하였다. 연구과정에서 연구방법, 자료수집, 자료분석의 절차를 상술하고, 다른 질적연구자 1인에게 의뢰하여 도출된 분석자료에 대한 논의를 거쳐 객관성과 일관성을 점검하였으며, 최종적으로 도출된 주제를 연구참여자에게 확인함으로써 체험의 사실성과 적용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또한 연구자는 참여자의 편이에 따라 자료수집을 하고 참여자가 스스로없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개방적이고 수용적인 태도로 평가자가 아닌 참여자 수준에서 경청하고 메모하였다. 그밖에 연구자의 외과병동 실습에 대한 자신의 경험을 분리하여 자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참여자와 친밀성을 유지하면서도 관찰자로서 객관적으로 현상에만 집중하였으며, 자료분석시 중립적인 관점으로 일관성을 유지하였다.

III. 연구 결과

본 연구는 3학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질적 연구방법인 현상학적 방법으로 간호대학생의 일

반외과병동 실습 경험에서 무엇을 경험하였으며, 그 경험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탐구하였다. 연구를 통해 나타난 간호대학생의 외과병동 실습경험의 본질적 구조는 ‘직접간호수행의 허용성’, ‘간호영역의 전문성’, ‘대상자 회복의 디딤돌 역할’, ‘간호참여에 따른 성취감’의 4개 범주였다(<Table 1> 참조).

1. 직접간호수행의 허용성

참여자들은 외과병동에서 실습을 하면서, 내과 보다는 덜 엄격하고, 수술전후 활력징후 측정이 잦아, 간호학생에게 많은 일이 주어지는 것에 대해 힘들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는 것에 대해 만족하였다. 또한, 수간호사의 질환에 대한 설명과 활동적으로 간호업무에 참여하시는 모습을 우호적인 분위기라고 진술하였다. 참여자들은 ‘수간호사선생님께서 직접 acting하는 일이 일반간호사보다 적으신데, 간호인계를 들으면,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시면서, 대안을 내놓으신다’고 진술하였고, 이를 수간호사선생님의 통찰력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외과병동에서는 수간호사이하 간호사들이 학생간호사의 실수에 대해 너그러움과 실제 학생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배분함에 따라 ‘실무에서 학생으로서 배려 받음’과 acting과 charting이 통합됨, 간호업무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음에 따라 ‘협력적인 병동 분위기’의 주제를 도출하여 ‘직접간호수행의 허용성’으로 통합할 수 있었다.

“수선생님께서 active 하셔서, acting과 charting 일을 다 통합적으로 알고 계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다른 곳보다 일이 빨리 끝났어요. 간호사 선생님들도 다들 활동적이었어요. 다른 병동에서는 수술 바로 전이나 후에 매우 급하게 vital sign을 측정한다던가 대상자 사정을 했는데 외과에서는 흔히 있는 일이라 그런지 서두르지 않고 침착하게 일 하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항상 뒤에서나 멀리서 인계를 들었는데 수선생님 양옆에서 가까이서 들을 수 있어서 훨씬 잘 들렸어요. 수간호사 선생님께서 타과 선생님들 보다 환자들과 보내는 시간이 길어서 환자와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 좋았고, 외과에서 꼭 보아야 할 것들을 말해주는 것도 좋았어요. 병실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퀴즈를 내어서 자신에 대한 평가를 받을 수 있었어요.”

<Table 1> Categorizing by Colaizzi' method

Themes (16)	Theme Clusters (8)	Categories (4)
Generousness in a mistake	Caring as a students in the field	Permission of direct nursing practice
Given a lot of task that I can do.		
Having not divide acting and charting	Cooperative atmosphere	Professionalism of nursing domain
Taking detailed descriptions in nursing		
Having continuous patients in the wards	Task-centered interrelationship	Professionalism of nursing domain
Coexisted various medical manpower		
Task patterns of colostomy, wound care	Professional nursing patterns	Serving as a stepping stone of patients' nursing
Task patterns of endoscopy nursing		
Doing many things in step by step.	Interested in dynamic practices	Serving as a stepping stone of patients' nursing
Continuous nursing of new patients		
Providing nursing care to the diseases	Playing as coordinated care	Sense of achievement to participating nursing
Playing as a post operation ward		
Don't reacting to patient's questions	Practicing nurse dependently	Sense of achievement to participating nursing
Indicated to their mistakes		
Applying knowledge to practices	Presenting methods of solving problems	Sense of achievement to participating nursing
Receiving helps with communication		

“수간호사 선생님께서 주도적으로 모닝케어를 하셨어요. 아침에 병실 라운딩하시면서, bed making 이랑, 환의도 더러워져 있으면 새로 교환해 주고, 환기시켜주시고, 환자상태도 보시는 점이 매우 인상적이었어요.”

2. 간호영역의 전문성

본 연구에서 외과병동은 소화기계 수술환자가 대부분이었고, 그와 관련된 분야별 전문적 간호의 업무분담이 이루어지는 것을 참여자들은 관찰하게 되었다. 욕창간호, 장루간호, 상처드레싱 등 병동 간호사이외의 전문 간호사들이 해당요일에 병동에 투입되어 환자를 간호하는 모습이 인상적이라고 표현하였다. 하지만, 병동에 수술전후에 사용하는 약들을 분리하고 하나씩 처치해 나가는 상황을 볼 때, 전문적 업무이지만, 노동집약적인 일이라는 것도 인식하였다고 토로하였다. 이에 업무에서의 부담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간호를 받는 대상자의 입장에서 질적인 간호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공감하고, 참여자들은 학생간호사 입장에서 간호사의약품정리 등 일부를 담당하기도 하였다.

이에 간호영역의 전문성은 외과병동의 끊임없는 입퇴원환자와 다양한 직종의 인력이 공존하는 업무중심의 대인관계와 병동의 전문간호사의 업무패턴과 내시경실 간호사의 업무패턴에 따른 전문화된 간호업무패턴의 경험이었다.

“장루간호사 선생님께서 설명을 친절하게 잘 해주셨어요. 장루 bag 관리법, 교환할 때 필요한 물품, 교환하시는 법을 한단계 한단계 가르쳐 주셨어요. 다른 병동에서는 오전이 바쁘고 오후가 한가했는데 이 병동은 오전보다 오후가 더 바빴죠. J-P bag을 remove하시고 suture하는 것을 처음 봐서 신기했고요. 그 외 상처간호사, trauma 팀 등 병동 간호사 이외의 인력도 있었어요. 전문적으로 일을 하시는 선생님들을 보고 있으니 멋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인계가 끝난 후 acting선생님은 아침투약을 하고 수간호사선생님과 day charting 선생님은 병동 라운딩을 돌면서 환자의 상태를 살피고 simple Dx.을 했어요. 아침에 수액과 약물이 들어오면 카운팅하여 물품정리하는 것은 간호학생인 우리가 했어

요.”

3. 대상자 회복의 디딤돌 역할

참여자들은 이 병동의 환자들은 수술받기 위해 외래를 통해 입원하고 수술후 회복기간을 거쳐 퇴원하거나 다른 병동으로 이동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또한 자신이 학교에서 이론적으로 공부한 간호과정이 어떻게 실현되는지는 잘 파악이 되지 않지만, 환자의 문제가 해결되어 나가는 모습을 보고 처음에는 이론과 실체가 다르다고 생각을 하다가, 실습기간이 끝날 즈음에는 간호과정이 이론처럼 형식화되어 표현되기보다는 실무에 녹아내려져 있다고 차츰 인식하였다.

학생들은 외과병동에서는 평소에는 한산하여도 중환 환자가 발생하면 간호사들이 깊이 토의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모습에 전문직임을, 바쁜 일을 순차적으로 처리하고 끊임없는 환자관리에 실무 역동성의 흥미로움을 느꼈다. 질병교육과 수술후 병동의 영역별 간호를 담당함은 대상자 회복의 디딤돌 역할로 통합할 수 있었다.

“L-tube에 대해서도 이 병동에 오기 전에는 비위관 영양에만 초점을 두어 생각하였는데, 비위관 배액을 하는 것을 보고 비위관에 대해 공부했어요. 환자분을 모시고 내시경 검사하는 것을 보았는데, 실제로 보는 것이 신기하였고, 책과 비교해보며 인상 깊었지만, 내시경 실로 가기 전 간호사 선생님이 검사에 대해 불안해하던 환자와 보호자들을 안심시키며 설명해주시는 연계교육을 볼 수 있었어요...(중략)... 심호흡 잘 안되는 할아버지께 진짜 풍선까지 사와서 불게 하는 것을 처음 봤고, 또 교육도 했어요. 상처 간호사 선생님을 쫓아다니면서 드레싱도 관찰할 수 있었어요.”

“외과병동이 코디네이터처럼 대상자를 ICU에서 다른 병동으로 옮기기 전 중간병동이라고 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대상자가 자주 바뀌어, 매일 새로운 환경에 노출된다는 것에 신선함을 느꼈어요. ... (중략)... 간호과정을 이론에서 배운 것과 비교할 때, 많이 생략되는 느낌을 받았지만, 나중에 보면, 환자상태에 대한 기록과 평가가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case study하는 보고서처럼 자세한 기록은 아니어도 실무안에 다 녹아져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4. 간호참여에 따른 성취감

참여자들은 환자에게 간호를 제공하면서, 실제 자신의 지식을 활용해서 환자의 궁금증을 해결해 주고, 환자의 처치가 합당하다는 것을 이해시켜서 자신의 이론적 지식이 실무과정에서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전문직이라는 것을 실감한다고 진술하였다. 그래서 간호전문인이 되기 위해서 항상 책을 찾아보고 환자가 질문할 때 당황하지 않도록 준비하는 게 중요했다고 진술하였다. 만약, 자신이 제대로 준비 못하여 대답을 못한 경우는 자신감이 떨어지고 흥미가 없어졌으며, 특히, 간호사에게서 받은 지적이 있으면, 다시는 그 일을 하고 싶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해 참여자들이 환자의 질문에 대응하지 못하거나, 지적을 받음은 간호사 의존적 간호수행으로, 지식을 실무에 적용함과 의사소통이 도움이 됨은 문제해결책을 제시함으로 구성하였고, 두 하위범주를 간호참여에 따른 성취감으로 통합하였다.

“제가 혈당을 측정할 때 환자분이 ‘식은땀이 난다, 힘이 없다’ 그러셨어요. 일단, 환자분 밥 언제 드셨는지 물어보고, 당을 잰데, 정말 낮게 나왔어요. 그럼 단 것 좀 드시게 하고, 선생님들한테 말하고 난 다음에 간호사 선생님이 의사선생님 오더 받아 환자에게 DW 주고 상태가 좋아졌을 때, 내가 환자간호에 참여했다는 게 정말 뿌듯했어요.”

“case study를 위해서 공부를 한 날은 환자처치에 대해 해석이 잘되거든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가끔 가다가 ‘이 약이 뭐예요?’ 하고 물어볼 때가 있었어요. 비타민제라고 말해주면, 또, 물어봐요. ‘지금 내가 왜 비타민제를 왜 맞고 있어요? 난, 괜찮은데...’ 그럼, 제가 수술 후 빠른 회복을 위해서 예방적으로 맞는 거라고 말씀드려요 ... 만약 내가 지식이 없어서, ‘모르겠어요. 선생님께 물어봐서 알려드릴게요.’ 라고 하면, 나는 내가 뭘 배웠지? 라고 생각되어, 내가 작아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IV. 논 의

본 연구에서 참여자들은 ‘직접간호수행의 허용

성’, ‘간호영역의 전문성’, ‘대상자 회복의 디딤돌 역할’, ‘간호참여에 따른 성취감’의 일반외과병동 실습 경험을 하였다. 또한 본 연구주체의 범주들은 서로 연결되어 일반외과병동실습 경험의 속성을 반영하였다.

참여자들은 학생신분에서 간호에 참여한다는 것에 대한 기대감과 긴장감을 가지고 있었다. 어느 실습병동에서와 마찬가지로 학생간호사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제한되리라 생각하면서도 주어진 일에 대해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이었다. 이에 참여자들은 일반외과병동에서 수간호사와 담당지도교수의 병동오리엔테이션을 받고 배정받은 시간에 실습을 하였다. 실습과정에서 이전의 내과병동과는 달리 관찰보다는 내가 해야 하는 일이 많았음을 깨달았다. 이는 만성질환 간호보다는 수술전후 간호를 하는 것에 초점을 둔 병동이라, 입퇴원이 잦아 분주하게 움직이는 병동환경이기 때문에, 인력이 많이 소요되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본 병동의 간호사들은 활동적으로 환자간호에 직접 참여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다. 본 참여자들도 일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많이 배울 수 있다는 긍정적 마인드를 가지고, ‘직접간호수행의 허용성’을 경험하였다. 수간호사의 자세한 설명과 학생의 작은 실수에 대해 관대함으로, 위축되지 않고 실습할 수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해 Jonsen 등(2013)의 연구에서도 허용적인 분위기가 미치는 긍정적인 측면은 여러 가지의 업무를 보여주고 할 수 있도록 자극해 주는 프리셉터의 역할이 간호대학생들에게 임상환경에서 안정감을 준다고 보고된 바 있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학생의 실무허용범위가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간호실무진과 함께 안전하게 간호사로서 연습할 수 있도록 기회가 주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두 번째 범주인 ‘간호영역의 전문성’은 본 연구의 참여자들이 일반외과병동에서 이루어지는 간호업무에서, 단순히 병동의 간호사에서 간호업무가 끝나지 않고, 대상자의 의료적 상황에 따라

분야별 간호의 전문화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는 수술로 인해 입퇴원환자가 빈번하고 일상적이라는 것과 다양한 직종간의 교류가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였고, 장루 및 욕창의 전문적 간호가 이루어진다는 것, 그리고 환자의 수술전 검사 및 특수검사 간호 등이 참여자들에게는 전문적 간호 분담과 업무중심의 대인관계라는 점에서 부각되었다.

세 번째 범주로 참여자들이 경험한 외과병동은 ‘대상자 회복의 디딤돌 역할’이었다.

이는 수술전후 간호가 요구되는 병동이며, 외과병동에서 수술회복후 대상자의 질환의 정도에 따라 다른병동으로 입원하거나 퇴원유무를 결정하는 중간단계의 병동으로 진술하였다. 즉, 환자 간호에서 디딤돌 역할은 회복을 촉진할 수 있는 의미를 내포하며, 이는 실무 역동성의 흥미로움과 영역별 간호를 담당함으로써 이루어졌다. 즉, 아무리 바쁜상황이라도 순차적으로 처리되는 간호 업무내에서 역동성의 흥미와, 환자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면서, 꼭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간호 역할을 하고 있는 병동으로 인식한 것이었다. 이와 선행연구 중 Callaghan(2011)의 수술간호의 팀 효율성에 관한 보고로 간호학생이 일반적인 간호수행에서 수술간호의 전문적 특성을 진술한 영역별 간호와 유사한 맥락으로 이해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참여자들이 일반외과병동에서의 병동에서의 간호경험을 소극적인 경향인 간호사 의존적 간호수행 또는 적극적 경향인 문제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간호참여에 따른 성취감’을 경험하였다. 따라서 소극적이든 적극적이든 자신이 간호에 참여함을 실감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대상자의 질문이나 간호에 직접 연루되어 의사소통 방법을 적용한 교육이라든지, 이론적 지식을 실무에서 유추하여 적용할 수 있었던 경우는 본인의 자신감을 향상시켰던 사건이 되었으나, 그렇지 못하고 작은 질문이라도 움츠리거나, 지적을 받은 경우에는 과연 간호사가 될 수 있을까라는 근심까지 갖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었다. 이는

임상실습의 스트레스 요인과 관련되며, 간호대학생들은 자율성향인 셀프리더십이 높을수록 자기 표현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임상적응도가 높았다(Han, Sun-Hee-Yu, Hye-Soon 2012)는 국내연구결과와 비교할 때, 본 연구에서는 자기노출에 대한 피드백으로 성취감이 다를 수 있었음을 드러내었다. 따라서 성취감의 발전은 단순한 개인적 속성을 넘어 대인관계 속에서 형성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국외 문헌에서는 간호대학생들 스스로 전문분야의 지식과 준비가 부족한 것에 의해 임상실습시 긴장도가 증가되었고 자신감이 감소되었으며, 이에 대해 학생들이 논의를 하면서 팀워크를 중요시함이 보고된 바 있었다(Coyne, E. & Needham, J. 2012). 또한 간호대학생들은 병동간호활동이 개방적이고 허용적인 분위기(Henderson et al., 2012)에서 격려되며, 경험이 많은 간호사가 지지해 줄 때 간호학생의 임상실습에서의 역량이 발전된다(Henderson et al., 2010; Jonsen et al., 2013)는 보고도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경험에 비추어 볼 때,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실무에 참여하고 적응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학생의 임상실습에 대한 준비도, 대인관계, 개방적이고 안전한 병동분위기 등이 지지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대학병원의 일반외과에서 실습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자료수집을 하는데, 포괄적인 외과보다는 소화기외과 실습에 국한된 것이 연구의 제한점이 있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일개 간호학과 학생들의 외과병동 실습경험의 의미를 밝히고자 시도되었다. 그 결과 간호대학생의 외과병동 임상실습경험은 ‘직접 간호수행의 허용성’, ‘간호영역의 전문성’, ‘대상자 회복의 디딤돌 역할’, ‘간호참여에 따른 성취감’의 4개의 범주로 경험의 본질적 구조를 나타내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임상실습관련 선행연구에서의 간호대학생의 실습지에 대한 일반적인 스트레스 요인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병동의 상황에서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에 대한 간호대학생의 경험과 의미를 탐구하여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경험을 구성한 것에 차이를 두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들의 입장에서 소극적인 참여 또는 적극적인 참여의 상황을 해석할 수 있었고, 실제 간호대학생의 임상적응도는 자신의 간호에 대한 피드백이 실무자신감의 차이를 이끄는 속성임을 유추할 수 있어 실무적 의의를 찾을 수 있으며, 간호대학생의 실무역량을 높이기 위한 외과병동의 임상간호실습프로그램은 간호학의 이론적 지식과 더불어 의사소통 및 대인관계역량의 개발을 위한 선행학습에 대한 교육적 의의와 본 연구의 경험적 자료는 임상간호실습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형성한 것에 연구의의를 제시 할 수 있겠다.

References

- Baek, Hee-Chong(2013). Implementing home visiting simulation for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27(1), 40~49.
- Blomberg, K. · Bisholt, B. · Engstrom, A. K. · Ohlsson, U. · Johansson, A. S. & Gustafsson, M.(2014). Swedish nursing students' experience of stress during clinical practice in relation to clinical setting characteristics and the organization of the clinical education. *Journal of Clinical Nursing*, 23(1), 1~8.
- Callaghan, Adele(2011). Student nurses' perceptions of learning in a perioperative placement, *Journal of Advanced Nursing* 67(4), 854~864.
- Colaizzi, F. E.(1978). Psychological research as the phenomenologist views it. In R. Valle, M. King (Eds), *Existential phenomenological alternatives for psychology*(pp. 48~71). New York, NY: Oxford University Press.
- Coyne, E. · Needham, J.(2012).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placement in speciality clinical areas: understanding the concerns of the student and registered nurse, *Contemporary Nurse*, 42(1),97~104.
- Han, Sun-Hee · Yu, Hye-Soon(2012). College women's self-leadership, stress of clinical practice and self disclosure in an area,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8(1), 130~139.
- Henderson, A. · Cooke, M. · Creedy, D. K. & Walker, R.(2012). Nursing students' perceptions of learning in practice environments: A review. *Nurse Education Today*, 32(3), 299~302.
- Henderson, A. · Twentyman, M. · Eaton, E. · Creddy, D. · Stapleton, P. & Lloyd, B. (2010). Creating supportive clinical learning environments: an intervention study. *Journal of Clinical Nursing*, 19(1-2), 177~182.
- Jonsen, E. · Melender, H. L. & Hilli, Y. (2013). Finnish and Swedish nursing students' experiences of their first clinical practice placement - A qualitative study. *Nurse Education Today*, 33(3), 297~302.
- Kim, Jung-Hee · Park, In-Hee & Shin, Su-Jin (2013). Systematic review of Korean studies on simulation within nursing education,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9(3), 307~319.
- Kim, Jeong-Sun · Sun, Jeong-Ju & Kim, Hyun-Sook (2009). Clinical practice experiences of nursing students, *Qualitative Research*, 10(1), 63-76.
- Korean Accreditation Board of Nursing Education (2013). Accreditation of nursing education; Nursing bachelor's degree course.
- Lincoln, Y. S. & Guba, E. G.(1985). *Naturalistic Inquiry*. Beverly Hills, CA: Sage.
- Son, Haeng-Mi(2014). Analysis of positioning in the nursing students' narrative of the experiences of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1), 129~137.

-
- Received : 12 June, 2015
 - Revised : 20 July, 2015
 - Accepted : 25 July, 2015